

	<b>보 도 자 료</b>	
<b>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</b> <small>Korea Real Estate Marketing Association</small>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0. 15(월) / 총 4매</b>
<b>담 당 자</b>	<b>사무국장 김영길, 팀장 황정현</b> <b>☎ (031) 8017-8510</b>	
<b>보 도 일 시</b>	<b>10월16일(화) 10: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	

##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, 초대 이윤상 회장 선출

-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0월16일(화)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발기인(발기인 37명) 총회를 개최하여 **이윤상 (주)유성 대표**를 **초대 회장**으로 선출하였다.
- 또한, 이날 선출된 **이사**로는, CLK 장영호 대표, 엠비앤홀딩스 심현태 대표, 미래인 황근호 대표, 건물과사람들 최창욱 대표, 유앤아이 김민욱 대표, 세원미 조규범 대표, 니소스 고승일 대표, 미드미 이월무 대표, 원포올 조정훈 대표 등이며,
- **감사**로는 상림디엠텍 임민섭 대표, 삼일산업 김선관 대표 등이 선출되었다.
- 이윤상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
  - 분양 마케팅(대행)사는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여년 동안 분양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해 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꿈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수행에 일익을 담당해 왔고,

- 또한, 매년 30만호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과 연평균 60만평 이상의 지식산업센터 및 200만평 이상의 산업단지 분양을 통하여 연간 30,000여명의 종사원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정책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.

※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 등만을 분양하는데는 연간 12,000여명 고용

- 그렇지만, 일부 분양 마케팅(대행)사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정부 등 외부로부터 부정적 인식을 받아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, **뼈아픈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**

□ 그러면서 **앞으로의 활동방향**을 제시했다.

- 첫째,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상담사, 도우미, 텔레마케터 등 종사자는 주택공급 등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와 깊은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**전문교육과 서비스 교육**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둘째, 부동산 분양·공급과 관련한 **정책 개발과 제도개선 과제**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- 셋째, 선진국들의 부동산 마케팅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벤치마킹하고,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에 발맞추어 **마케팅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**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- 넷째, 회원사 임·직원 워크숍을 통해 협회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, 발전방향을 토론하며, **공정경쟁과 자율정화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**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
-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등 **협회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**고 밝혔다.

## 언론 보도내용(10.17)

2018.10.16.17:00이후 보도내용

매체명	기 사 내 용
MBN (10.17 07: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양대행사 “권익보호”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</li> <li>- 상품전략과 모든 마케팅 실행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케팅회사로 거듭나자</li> </ul>
조선비즈 (10.17 03:0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발족</li> <li>- 회원사 37곳, 내년말 200곳까지 확대</li> </ul>
세계일보 (10.17 03:0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, 초대회장에 이윤상 대표</li> <li>- 막대한 고용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조차 돼 있지 않음</li> </ul>
한국경제 (10.17 02: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, “분양대행업, 전문·투명성 강화”</li> <li>- 연간 작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10만명을 운용하면서 고용 창출에도 기여</li> <li>- 연내 100곳, 내년말까지 200곳 확대</li> </ul>
중앙일보 (10.17 00:0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인사)이윤상 부동산마케팅협회 초대 회장</li> <li>- 분양업에 종사하는 상담사, 도우미 등 종사자교육 실시, 분양관련 제도개선과제 발굴</li> </ul>
이코노믹 리뷰 (10.16 22:4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양대행업 20년만에 뭉쳤다...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첫 행보는 ?</li> <li>- 분양상품 대행과 함께 업무전반을 수행하는 부동산 마케팅사로 탈바꿈하며 권익보호를 외쳤다</li> <li>- 연말까지 100개 규모로 확장</li> <li>- 협회 출범으로 국토교통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졌다는데 의의를 뒀다</li> <li>-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식 분양방법이 유행하면서 해외 진출 시공사들이 국내 마케팅방법과 노하우를 현지에 접목시키고 싶은 회사들이 다수가 있어 해외진출을 지원도 고려하고 있음</li> </ul>

매체명	기 사 내 용
MTN (10.16 17:4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양대행업계 하나로...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</li> <li>- 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종사자들을 교육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,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추진</li> </ul>
MK뉴스 (10.16 17: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마케팅협회 공식 출범</li> <li>- 연내 100곳, 내년말까지 2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</li> </ul>
파이낸셜 (10.16 17:1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부동산마케팅협회 발족 “분양서비스 전문성 제고”</li> <li>- 상담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할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적 지식이 중요해졌음</li> <li>- 협회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받아야만 분양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</li> <li>- 단분 분양대행 업무 뿐만아니라 각종 분양 마케팅 사업이 이루어질수 한다는 목표</li> </ul>
매경 TV (10.16 17:0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출범,...초대회장에 이윤상씨</li> <li>- 연내 100곳, 내년말까지 2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</li> </ul>